

중형급 태풍 '타파' 대비 만전

전북도, 도내 전지역 태풍 주의보 발효 따라 비상체제 강화 송하진 도지사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철저히 기해야" 강조

전북도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22일 낮 12시부터 도내 전지역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체제를 2단계로 강화하고 태풍진로를 예의 주시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7호 태풍 '타파'는 중형의 강한 태풍으로 9월 22일 9시 서귀포 남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동방향으로 28km/h로 이동 중이며,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는 9.21~22일 10시까지 정읍시가 105.4mm의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 20~70mm가 추가로 예상되어,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6시 15분 비상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철저히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풍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응급복구 하는 과정에서 자칫 응급복구 활동에 투입된 봉사자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많은 비에 따른 벼 도복과 중·만생종 사과·배 등의 낙과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태풍에 따른 교통 통제 상황은 항공기 3개 노선 모두 결항 중이며, 여객선도 4개 항로도 모두 지난 21일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이며 도내 국립·도립공원 등 130개 탐방로도 통제 중이다.

도민 스스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강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되도록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진성 기자

전남 신안 흑산도 지진 발생 전북지역에선 피해 없어

22일 오전 11시 7분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번엔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22일 14시 현재까지 전북도에 접수된 유감신고는 및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에 65회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일주일간 지진이 3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시·군에 상황관리 철저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한 국호련의 일환으로 10월 30일(예정)에 국민참여 지진 대피 훈련 실시를 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 최초 개발·보급' 전주 드론축구 알리기 나섰다

전주시, 민주 정책페스티벌서 전북지역 대표로 주제 참가 행사장 찾은 관람객에 관심사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2019 정책페스티벌' 행사에서 드론축구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해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세계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를 홍보하는 정책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책대외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책경연대회, 정책토론회 등과 함께 총 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홍보부스가 운영됐으며, 시는 전북지역 대표로 드론축구를 주제로 참가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 정치권에 성장동력산업인 탄소산업과 미래먹거리산업인 드론·ICT기술을 융복합한 전주시 드론축구를 널리 알려 드론축구의 지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세계적인 레저스포츠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드론축구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는 중국이 세계 드론 제조산업의 70%를 점유하고 있



전주시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 참가해 세계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를 홍보하는 정책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차별화된 드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발한 신개념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이다.

드론축구는 탄소 융복합소재로 제작된 축구공 모양 드론을 공으로 활용해 3m정도 높이 공간의 원형 골대에 넣는 경기로, 한 팀이 5명씩으로 구성돼 세트당 3분씩 3세트로 진행된다. 지난 2017년 서울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에서 드론축구가 시범경기로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현재 전국에 16개 지부 108개 팀과 중국·일본 등 4개국에게도 해외 드론축구팀이 구

성됐다.

나아가 드론축구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사)대한드론축구협회(이사장 김승수, 양군의)가 설립돼 드론축구대회 개최와 대회협력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스포츠를 총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국제항공연맹(FAD)에서도 드론축구를 시범종목으로 선정하고 드론축구 규정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드론레저스포츠로의 입지를 갖춰 나가고 있다.

신규문 시 수소재탄소산업과장은 "전주는 맛의 고장, 한옥마을로 많이

알려져왔지만 이번 정책페스티벌을 통해 드론축구를 비롯해 ICT융복합 산업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드론축구가 세계로 뻗어나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드론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드론레저스포츠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드론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전주시 드론축구 용품 제작 업체는 그간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효철 기자

마카오 해외원정 상습 도박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시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0)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경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범행 기간 해외에서 497차례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흥풍달러를 받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담상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 기원

강원도 유비플러스, 전주시에 운동화 기탁

멀리 강원도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의 손길이 도착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주)유비플러스(대표 조재영)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운동화 500켤레(시가 2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조재영 (주)유비플러스 대표는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을 맡고 있는 변재관 박사와의 인연으로 그간 여러 차례 전주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발품을 팔며 통합돌봄을 수행할 민·관 직원들을 위해 운동화를 후원하게 됐다.

시는 기탁 받은 운동화를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 기관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



복지관 등 민간 직원들과 동 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3일 출범식 이후 복지·돌봄과 보건·의료, 주거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사업수행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447명을 결정한 후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선도사업에 착수했다.

조재영 (주)유비플러스 대표는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한다"면서 "강원도에서도 전주시의 성공모델을 발판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노후준비도 '탄탄대로'

국민연금, 도로공사와 노후 지원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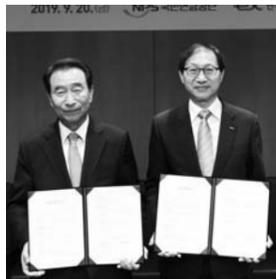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0일 본부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임직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은퇴예정자 등 임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 및 홍보 지원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기초연금 홍보 및 공동사업 활성화 △양 기관의 교육내용 및 과정 개발 등에 관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노후준비전문강사를 통해 재무와 비재무(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46만명에게 10,218회, 2018년에는 50만명에게 10,944회 교육을 실시했고,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56만 명의 국민에게 8만



2471회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단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쓰겠다"며,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최초 배 품목 전문농업경영인 탄생

전주시 덕진구 장동 김락출씨

전북지역 최초의 배 품목 전문농업경영인이 탄생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덕진구 장동에서 20년 이상 배를 재배해 온 김락출(64)씨 농가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의 배 품목 분야에 최종 합격, 전라북도 최초로 배 품목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는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을 의미한다.

이번 지정시험에는 전국에서 336명이 응시한 가운데 1차 필기,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총 22개 품목에서 44명만이 최종 선정(합격률 13.1%)됐다.

지난 1994년부터 배 과원을 운영해 온 김락출 마이스터는 현장에서 다양



한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2011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한 농업인 대학과 2015~2016년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배 전공과정을 최종 합격, 전라북도 최초로 배 품목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됐다.

김 마이스터는 또 정성과 생산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계전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대학교 농생명융합대학농업사범대학 현장강사로 위촉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 마이스터는 향후 농업마이스터로서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교수와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등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선미촌 문화기획단, 은평 구산도서관마을 등 벤치마킹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모델 찾기에 나섰다.

시와 선미촌 문화기획단은 20일 선미촌을 인권·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차례로 방문해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례를 견학하고, 선미촌의 기능전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시는 60여 년 전 서노송동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모델 찾기에 나섰다.

시와 선미촌 문화기획단은 20일 선미촌을 인권·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성매매집결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강제철거 후 전면 개발된 적은 있지만, 인권·예술 공간으로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선미촌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송효철 기자

'사랑의 띠로 하나돼 청소년 품어'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 공동사업 평가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YWCA 위탁, 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1일 전주 중앙살림관에서 실행위원회 공동사업인 연합아웃리치와 전주시 청소년안전망 소속 4차 실행위원회 공동사업 평가회를 진행했다.

먼저 올해로 7회째 맞는 연합아웃리치는 '사랑의 띠로 하나돼 전주시청소년을 품다'를 주제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거운 꿈과 희망을 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의 트럼펫과 플루트 등 악기 합주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 총 5팀의 유쾌한 끼가 발산되는 청

소년 축제의 장을 펼쳤다.

또한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소속 16개 기관의 기관홍보 및 자원 사항 안내, 다양한 체험거리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기관들은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함께 직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 공동사업 15개 기관의 연합아웃리치 평가 및 위기청소년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오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